

전국 법원 휴정기...광주·전남 해 넘기는 주요 재판은?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다만, 휴정기 직후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은 인사 이동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해 1-2월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광주고법 법은 이날부터 다음해 1월3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긴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한 심사는 평소처럼 이뤄지나, 변론기일 등

일반적인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휴정기는 의무가 아닌 권고 성격이라 재판이 열리기도 한다. 실제 휴정기 첫날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와 형사8단 독재판부는 각각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중 형사11부는 동계 휴정기 후 인사 이동이 유력한 재판부여서 담당 사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형사11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이하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광장)과 피고인 17명에게 묻는 재판의

인사 예정 재판부 등은 속행...화정아이파크 1심 연초 결론

선거법 위반 김문수·신정훈 1월 선고...박근혜 명운은 2월

1심 선고를 발생 3년여 만인 다음해 1월20일에 하는 곳이기도 하다.

법인 3곳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 1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전부 유죄라고 강조했다.

현산은 다음해 2월6일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동 4구역

붕괴참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받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 기로에 선 현역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휴정기 후 이어진다.

가장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

곡성·구례갑)이다. 김 의원은 4·10 총선 전 자신의 SNS에 방송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김 의원에게 대한 선고는 1월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이뤄진다.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월17일 광주지법 형사2부에서 1심 판결을 받는다. 최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형사2부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면서 자신도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갑)의 명운을 2월7일 가른다. 최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도 한 박 의원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안도길(광주 동남읍)·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공선법 위반 재판도 맡고 있는 형사2부가 1월 한 달간 집중 심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도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영 기자



독감 환자로 북적이는 병원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3일 오후 광주의 한 아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3.6명으로 유행 기준(8.6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김애리 기자

‘사라진 대북지원 소금’ 민화협, 道 보조금 소송 패소

광주지법, 원고 ‘반환처분 취소’ 청구 기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매입한 소금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전남도의 대북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민화협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전남도 남북 교류 협력 공모사업에 응모해 기금 5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를 통해 민화협은 대북

인도적 소금 지원을 위해 신안천일염 유통사업단 영어조합법인에 4억7천500만원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조합은 총매입 대상 소금 1천100중 402이 부족하다고 전남도에 통보했고, 이에 전남도는 매입 소금의 소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민화협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목적 달성 곤란’ 사유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지급한 보조금 5억원에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민화협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화협은 “수탁사(천일염 조합) 대표이사 사망해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남도가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 매입한 소금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매입한 소금 소재조차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688 소금의 존재도 불분명한 상태다”고 판단했다. /인재영 기자

“횡령·갑질 일삼은 별정우체국장 해임 정당”

광주지법,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횡령과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화순군 한 지역 별정우체국장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국장으로 근무하다 비위 적발 등으로 올해 해임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적발된 비위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

험계약 모집사 부당 등록, 부당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일례로 A씨는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 이웃 성금함을 개봉해 300여만원 성금을 전일 국장에게 보내거나 퇴직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줬다. 또 직원들이 받은 예금 모집수당 700여만원도 반납하게 해 가로챘고, 부하가 모집한 보험 계약 실적을 자신에게 등록하게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에도 압박을 가했는데, 일부 직원은 이 같은 갑질에 퇴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로 징계를 받게 된 A씨는 사유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맞더라도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게사유대부분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 A씨가 가피해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별정우체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국장 등 임직원은 준공무원 신분해 해당한다. /인재영 기자

GGM 노사 2차 조정 불발...파업 ‘전운’

임금·복지·노조 활동 등 이견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노사의 2차 조정도 불발됨에 따라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 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노사 간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약 3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노조는 조합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린 뒤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단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30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환경 개선, 상생협력기여금의 처당 지급 철폐 등을 요구했다.

임금·복지·노조 활동 정책 등에 대해 조정 전 8차례 교섭과 지난 19일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GGM 노사 교섭 결렬 소식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노사 간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계급장 떼고 말해” 상관모욕 20대 집중

군인 신분이었을 때 상관에게 욕을 하고 전역 후에는 절도 등을 일삼은 20대에 집중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3일 상관모욕, 절도,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한 기갑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상관에게 욕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훈계하는 대위에게 “계급장 떼고 말하자. 사회에 나가면 단신은 나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영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